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o 영국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사업 현황 파악
o 웨일즈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 및 자료 협조
o 청년 지역정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네트워크 현황 파악

□ 과제명

o [수탁26-030-0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평가: 사회분야

□ 출장기간

o 2026.10.05.(월) ~ 2026.10.11.(일)

□ 출장국가(도시)

o 영국(런던)

□ 출장자

o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류진아 전문연구원, 한수진 연구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26.10.06. (화)	영국 런던	King's College	차민지	○ 영국 청년 노동시장 및 고용·직업훈련 정책 추진 현황 ○ 영국 청년 정책의 쟁점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주는 함의
2026.10.06. (화)	영국 런던	Local Trust	John Fox(부대표), Megan Falck (프로그램 매니저)	○ LT 기관 개요 ○ Big Local 사업 진행성과 ○ 영국 낙후지역 지역사회활성화 방안
2026.10.07. (수)	영국 런던	King's College	Michael Sanders (교수)	○ 웨일즈 기본소득 실험 현황 ○ 한국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현황 및 분석틀 등에 대한 논의 ○ 농어촌 기본소득 정착을 위한 연구방법 등 논의
2026.10.08. (목)	영국 런던	Foyer	Siobhan, Arlene 외 5인	○ 영국 취약청년 대상 NGO 역할과 기능 ○ 취약청년의 사회 재도전과 진입을 위한 사례관리 현안 파악
2026.10.09. (금)	영국 런던	Open Univ.	Rajiv Prabhakar	○ 영국 금융시장 및 금융정책 논의 ○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 웨일즈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 논의
		Oxford Univ.	한솔희 박사	○ 기본서비스 논의 배경과 관점 ○ 재분배와 복지국가 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한 기본소득에 주는 함의 검토

2	출장 주요내용

①	영국 청년 노동시장 이행 실태 및 정책 추진 현황
일 시	10월 6일 (화) 10:00
장 소	영국 런던 (King’s College 인근)
참석자	차민지(King’s College) 김태완, 류진아, 한수진(KIHASA)

□ 영국 청년 노동시장의 현재 상황

○ 영국에서 교육·고용·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16~24세 청년(NEET)은 2026년 4~6월 기준 약 98만 1천명으로 해당 연령집단의 13% 수준임. 직전 분기 대비 3만명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0만명에 근접한 규모임

○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NEET 청년이 24만 8천명 증가하였으며, 2025년 잉글랜드 기준 NEET 비율은 13.3%로 2024년 13.6%에서 소폭 하락. 다만 감소분은 교육·훈련 참여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청년 실업 자체는 오히려 악화

○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이 2024년 1.6%에서 2.2%로 상승하여 2014년 이후 최고 수준. NEET 중 약 40%가 실업 상태이며 나머지는 비경제활동 상태임

○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약 6명 중 1명 수준에 달함

□ NEET 청년의 구성 — 두 가지 축

○ 첫째는 학력임. 22~24세 NEET 청년의 약 44%가 GCSE 수준 이하 학력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동일 연령 전체 청년의 20%와 대비됨. 졸업생 취업난이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로 가장 취약한 집단은 저학력 청년임

○ 둘째는 건강임. NEET 청년의 거의 절반이 근로능력을 제한하는 건강 문제를 보고하고 있음. 정신건강과 신경발달 문제가 이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

○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를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 고용지원과 건강·웰빙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청년 이행 문제

○ 전국 평균 수치로는 지역 간 격차가 드러나지 않음. 산업이 쇠퇴한 지역, 연안 지역, 농촌 지역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 자체가 축소되어 있음

○ 과거 광업·제조업이 유지하던 지역의 진입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청년이 첫 일자리를 얻고 경력을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의 아래쪽 단이 없어진 상태

○ 농촌·원격지에서는 교통 접근성이 결정적 제약으로 작동함. 훈련기관이나 일자리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참여 자체를 차단함. 런던은 청년 무료 대중교통이 있으나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함

○ 결과적으로 청년의 지역 이탈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지역의 노동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순환이 형성됨

□ 영국 정부의 청년 고용·직업훈련 정책 추진 현황

○ Youth Guarantee(청년 보장)가 2026년부터 시행 중.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으며 18개월 이상 구직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보장된 유급 일자리 경험과 정규 취업으로의 이행 지원을 제공

○ 이와 연계된 Jobs Guarantee는 현재 18~21세, 유니버설 크레딧 수급 및 18개월 이상 구직 요건으로 시범 운영 중. 재원은 일자리 보장, 취업지원금, 직장경험 및 훈련, 고용지원 확대, 청년 견습생 채용 기업 지원 등에 배분됨

○ 이 외에 Youth Hubs(청년 원스톱 지원 거점), Skills Bootcamps(단기 집중 직업훈련), 견습제도(apprenticeship)가 주요 수단으로 운영 중

○ 정부는 Alan Milburn이 이끄는 NEET 관련 검토와 Peter Fonagy가 이끄는 청년 정신건강·신경발달 문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두 보고서 모두 금년 가을 발표 예정.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정책에 대한 평가와 쟁점

○ Milburn 중간 검토는 상당수 청년이 교육과 고용 모두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함. 위험요인으로는 특수교육 욕구, 결석, 퇴학의 증가, 직업경험 부족, 그리고 청년이 현실적으로 진입하여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일자리의 감소를 지적

○ 18개월이라는 수급 요건이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미 장기 이탈이 발생한 뒤에야 개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대상 확대와 연간 5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 투입을 제안하고 있음

○ 시민사회 측에서는 25세 미만 청년이 고용이나 교육을 떠난 뒤 4개월 이내에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기 개입형 보장제를 대안으로 제시. 조기 개입, Youth Hubs 확대, 장기 NEET 대상 시범 배치사업, 중급 자격 경로 확충 등을 함께 요구

○ 정부 프로그램이 양적 성과 지표에 치중하여 청년 개개인의 관심과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중간조직의 세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음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주는 함의

○ 첫째,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현금급여의 근로유인 효과를 단순하게 해석하기 어려움. 영국의 경험은 '일할 유인이 줄었다'와 '일할 자리가 없다'가 동시에 작동함을 보여줌. 조사 설계에서 구직활동 여부와 지역 내 일자리 가용성에 대한 인식을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어촌에서 현금의 고용 효과는 이동성을 경유할 가능성이 큼. 면허 취득, 차량 보유, 통근시간 변

화 등을 고용 관련 항목에 포함할 가치가 있음

○ 셋째, 건강과 정신건강이 고용 결과의 중요한 매개 요인임. 복지·웰빙 영역 분석에서 건강 지표와 경제활동 상태를 연계하여 볼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현금급여만으로는 청년의 정주를 유도하기 어려움. 영국은 보장제, 훈련, 거점 상담을 결합한 패키지로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 시범사업에서도 현금과 병행하여 어떤 서비스가 공급되는지가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임

②	영국 Local Trust 운영 개요 및 지역활성화 성과 관련 회의
일 시	10월 6일 (화) 14:30
장 소	영국 런던 (Local Trust 사무실)
참석자	John Fox(부대표), Megan Falck(프로그램 매니저) 김태완, 류진아, 한수진(KIHASA)

□ Local Trust 소개

○ Local Trust의 대표사업 Big Local은 잉글랜드 150개 지역에 영국의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장기간 공동예산을 부여하고 주민이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한 사업을 관리하는 기구임

- Local Trust(이하 LT)는 주민이 우선하는 생활문제, 현금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지역서비스, 공동체 변화에 필요한 시간을 모니터링 중
- LT는 150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펀딩은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 중. 개개인보다는 지역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펀딩을 제공하고 있음

○ Community Needs Index(CNI)는 소득빈곤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기반의 부족을 지역 단위로 측정함. 서비스 접근성은 연결성 영역의 일부이며, 공간·시설, 참여·조직 역량과 함께 보여줌.

□ Big Local 사업 개요 및 한국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주는 영향

○ Big Local 사업 개요

- Local Trust의 장기·유연한 자금지원과 실무지원은 주민이 계획을 수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시간을 보장하려는 설계임. 사업성과는 시설 수나 지출액뿐 아니라 주민이 자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남았는지를 포함함

항목	확인 내용
기관	2012년 설립된 지역 기반 지원기관.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 재원으로 Big Local 운영
대상·기간	잉글랜드 150개 지역. 지역별 10~15년의 장기 지원, 전체 사업은 2011~2026년
재원	지역별 최초 £100만, 투자수익을 활용한 £15만 추가 배정. 중앙의 총기금과 지역별 배정액은 구별
의사결정	주민 파트너십이 우선순위와 계획 결정. Locally Trusted Organisation이 자금관리·회계 등을 지원
목표	주민의 욕구 파악·대응 역량, 기술·자신감, 우선문제 해결, 더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

□ CNI의 서비스 접근성 구성

상위 영역	주요 내용
공동체 자산	모임·문화·여가·녹지 등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과 시설
연결성	필수서비스 이동시간, 교통·디지털 접근, 고립 등
활동적이고 참여하는 공동체	시민 참여, 지역조직 및 공동체 결속 등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주는 시사점

○ 농어촌지역은 물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으로 서비스와 고용에 대한 접근성이 한계.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 수행. LT사업의 농촌지역은 과거 광업지역이었으며, 산업이 소멸되며 고립되어 가고 있음

- 150개 지역은 낮은 사회자본을 가진 지역이었으며 지역활동 조직도 없었던 지역이었음. 많은 지역을 LT가 지원했지만 이 중 150개 지역만이 오랜 기간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지역 조직 구성 방안

- 초기 중간지원 조직도 있었지만, 일관되게 운영된 조직을 찾기가 어려웠음. 그래서 중재자를 두고 운영.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뱅크조직이 기금을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주민, 자선단체, 학교 조직 등이 참여하였으며, 최종은 주민이 선발해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 여기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담당함. 하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음. 오로지 LT가 자발적으로 운영하게 됨. 정부 특히 지방정부 개입이 없이 진행. 지역에 따라 공무원의 반발도 없지 않았음.
- Bank로서 역할을 한 기관은 예산의 5%를 가져가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함. 현재는 사업이 확대되며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예산이 시설 등에 투자했을 때 이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 하지만 새로운 펀딩을 만드는 데는 기여했을 것으로 인식

○ LT사업의 성과를 표현하면 6가지 주제가 거론됨. 커뮤니티 공간 조성, 건강 개선, 지역 위기 대응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청년 및 자부심 상승 등에 관심.

- 지역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참여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스스로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지 평가 준비 중

○ LT에서 보는 지역활성화의 의미란 특정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의 자신감, 연대감이 생기는지, 미래에 대한 대비, 참여도 등 인지적 측면을 평가함.

- 경제적 활성화의 경우 지역단체 차원에서 citizen advice가 개입하여 개개인의 자금 활용 등에 대해 교육 등을 시행. LT가 보기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프로그램 성과 중 하나인 공간이 주는 의미는 중요함. 실제 예산 사용이 적은 지역은 공간이 없었던 지역이었음. 공간을 통해 인지, 연대감 등이 형성된다는 점 인식. 정부정책이 빈곤층 등을 타겟팅하고 있지만 LT는 다른 계층에 집중하자고 주장함

○ LT가 판단한 community 단위는 복권기금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초로 함. 조사원이 다니면서 맞추어 커뮤니티를 결정. 행정과 차이를 가진 경우도 있음.

- 커뮤니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확대된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작아지려고 할 때는 LT가 개입하여 조정하기도 함

○ CNI는 사회불평등뿐 아니라 인프라까지도 포함한 지수임.

- 통계적 의미보다는 지역적,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음. 정부와 협업하면서 다른 지역으로도 지수를 확대하고자 함. 지수는 기존 사회경제적 매트릭스와 LT가 더하고자 하는 물리적, 기관 간 네트워크, 주민 간 연결성을 포함해 지수를 만들어 냄

③	**웨일즈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
일 시	10월 7일 (수) 12:00
장 소	King's College Office
참석자	Michael Sanders 교수 김태완, 류진아, 한수진(KIHASA)

□ 사업 개요

○ 웨일즈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보호종료 청년의 자립 전환을 지원하는 현금급여 실험으로 전체 평가는 카디프대학교 CASCADE의 Sally Holland 교수와 David Westlake가 이끌며, King's College London의 Michael Sanders 교수는 영향평가 작업패키지를 책임짐.

- 동 시범사업은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중 만 18세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매월 1,600파운드(세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웨일스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됨.
  - 기본소득으로 명명한 이유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으며, 지원받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의 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웨일즈는 대조군과 처치군이 있음. 처치군은 ① 웨일즈에서 전세대에 태어난 집단, ② 유사 시기 태어난 잉글리쉬 거주 청년, ③ 웨일즈에서 먼저 태어난 집단 간 비교를 함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웨일즈 프로그램은 중간지원조직이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청년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됨. 누수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 2026년 2월 제3차 연차보고서까지 공개됨. 현재까지의 연차보고는 시행과정·참여 경험·작동경로에 관한 근거가 중심이며, 비교집단을 활용한 영향평가 결과는 2027년 발표 예정임

항목	내용
사업명	Basic Income for Care Leavers in Wales Pilot
대상	2022년 7월~2023년 6월에 만 18세가 된 자격 충족 보호종료 청년
지원	2년간 월 £1,600 세전 지급, 원천징수 후 £1,280. 기존 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정상담 병행
운영	웨일즈 정부 및 22개 지방정부. 최초 지급 2022년 8월
평가기간	2022년 11월 착수, 2027년 최종보고 예정

□ 웨일즈 평가의 자료와 분석

○ (1) 웰빙과 건강의 측정

- 2025년 공개된 통계분석계획의 측정 구성은 다음과 같음. 웰빙 전반을 단일 정신건강 척도로 대체하지 않고, 정서·관계·생활조건과 우울·불안을 구분함

영역	공개 계획에 명시된 측정
심리적 웰빙	정서 경험의 빈도, 불안·행복·긍정적 느낌 및 개방형 문항
신체 및 정신건강	ONS의 주관적 일반건강·활동제한 장기질환 문항, PHQ-2 우울 및 GAD-2 불안 선별문항
관계와 지지	친구·파트너·신뢰할 사람의 유무, 정서적 지원, 추적조사의 공동체 결속 문항
생활조건	재정 대처·돈 관리, 주거상태·만족, 여가·인터넷 접근 등

- 설문 기반은 Coram Voice의 Your Life Beyond Care임. 평가팀이 처음부터 전체 조사를 설계한 구조는 아니며, 정부가 별도로 위탁한 조사에 합류함. 2022년 10월 조사가 시작되고 2023년 1월 문항이 추가되어, 모든 기초값을 지급 전 측정치로 볼 수는 없음.

○ (2) 설문과 행정자료의 비교

자료	비교구조와 역할
설문	수급집단과 다음 기수 웨일즈 보호종료 청년을 비교. 추가 잉글랜드 설문을 이용하는 비교안도 포함. 약 18세와 20세 측정
행정자료	LEO의 교육·취업·소득 기록을 활용. 동년배 잉글랜드 청년과 비교하며 지방정부와 개인 수준의 CEM(Coarsened Exact Matching)[1] 매칭 계획
분석전략	공개 계획은 매칭 및 이중차분 접근을 제시. 설문 주분석 식은 추적값에 기초값을 통제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적용식 확인 필요

	○ 시기에 따른 보고서 내용 **발표** / **보고의 중심** 2024년 2월 제1차 / 실무자의 초기 인식, 사업의 이론적 토대, 참여집단의 기술적 현황 2025년 3월 제2차 / 청년의 초기 수급 경험, 정책 설계·시행과정, 당사자 공동연구 참여 2026년 2월 제3차 / 사업 중간과 종료 후 청년 경험, 실무자 관찰, 자료를 반영한 논리모형 수정 2027년 예정 / 봄 제4차 연차보고 및 이후 최종보고. 영향·경제성 평가로 확장
④	**Foyer 취약청년 대상 지원사업 현황 파악**
일 시	10월 8일 (목) 11:00
장 소	Foyer London office
참석자	Siobhan, Arlene 김태완, 류진아, 한수진(KIHASA)

□ Foyer 기본 현황

○ 포이어 연합 네트워크는 전체 52개 연합이 함께하고 있으며, 각각의 빌딩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 건물 소유는 자선단체, 특정기관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52개는 포이어 연합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이외에 별도 기관 등이 존재하고 있음. 과거에 파악된 120여 개는 이를 포함한 수치로 보임

○ 포이어 본사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질적 향상, 청년 문제 해소, 서비스 총량 등의 세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함

○ 각 단체가 자체 운영하면서 거주자의 연령을 다양하게 결정하고 있음. 보통 16-25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어 지원 청년 연령은 이 범위내에 대부분 해당. 포이어는 10년 전과 동일한 목적하에 운영하고 있음 (슬라이드 참조).

-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년은 스스로 찾아오거나 또는 아웃리치, 지역단체 등을 통해 연계되고 있음. 16세 이하는 HMO에서 지원받다가 찾아오기도 함. 이외 병원이나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등을 발굴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포이어 본사가 리크루트 해서 지역 포이어에 보내기도 함

□ Foyer 관련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 포이어에서도 청년층의 시대적 변화를 인지하고 있음. 영국 내에서 청년 노숙자 등이 증가 중. 2021년 7%에서 18%로 증가함. 이중 1/3이 정서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지원 수요에 비해 이를 돕는 스태프가 부족한 어려움에 직면

○ 금전적 지원 관련해서 보면 포이어가 별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대신 기술(=능력, 역량)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영국 복지제도인 유니버셜 크레딧에의 접근성 지원,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거주자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하드쉽 펀드를 운영 중. 소비방법 교육과 직업 구직 과정의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

○ 내부 워크숍 운영(매주 목요일 미팅) 중이며, 여기서는 예산활용 방안, 거주환경 활용, 건강한 활동 방식 등 국가에서 주는 복지제공 서비스에의 접근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주고 있음

- 청년이 스스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원 중. 여기서 가치라는 의미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새로운 직업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함

○ 고용과 관련하여 구직서비스를 제공 중임. 레노바라는 시민단체와 파트너 관계를 통해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중

- 유니버셜 크레딧도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청년층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또한 자영업 등에 대해 관심 있는 청년을 위해 전문가(파트너쉽 기관에서 파견. 참가하는 전문가도 일자리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를 초청해서 기술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 중

-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는 지역화폐로 지출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민간단체(복지관, 지역자치조직, 사회연대경제 등)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취약계층 지원(지역화폐를 잘 활용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

○ 청년 자립 과정에서 평가를 하고 있음. 세가지를 평가하고 있음, 첫째, 스스로 월세 낼 수 있는지, 둘째, 생계를 위한 기본 지출을 부담할 수 있는지, 셋째,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거주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 세가지 모두 부합되면 자립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기관을 떠나게 됨

- 기관을 벗어나면 청년은 세 가지 형태로 이동함, 시에서 운영하는 카운셀하우스에 지원하거나, 자신이 직접 주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정부운영 지원 주택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

- 새롭게 18개월 전(최근) 도입된 제도는 시설을 벗어났지만 부적응시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때는 구직부터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원하고 있음. 사례관리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 지난 시기 재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최근 도입된 제도를 통해 재입주도 가능함. 하지만 재입주시 조건은 있음. 자립이후 평가에서 부정적인 경우에는 재입주가 어려움

○ 포이어 본사에서는 자립 청년을 관찰한 결과, 자립 이후 40%는 지원시설에 머무는 것을 확인, 단지 5%만이 개인 소유 주거로 이동함. 이는 청년이 독립한 이후 주거에 있어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두 달치 월세 선납 등을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런던의 경우 사회주택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음.

- 이외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중이며, 주로 조세 납부 방식, 벌어들인 소득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함. 예산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거주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가스료 등 납부에 대해 배우며 삶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게 됨. 이것이 시설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사례(청년여성)는 정치와 자원봉사에 관심을 둔 바 있음. 작년에 아동병원에서 일하며, 정부가 청년의 노숙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직접 참여하며 의회와 정당활동 등으로 확대하면서 현재는 의원

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 사례(청년남성), 리버플의 금융업계 종사자가 제공한 자원봉사를 통해 금융시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바 있음.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기술 트레이닝을 배울 예정임

○ 내부적으로도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원단체의 다른 부서에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구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

- 기업과 연계해서 기술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 포이어는 영엔터테인먼트제도의 지원을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지원하고 있음
- 사례(남성), 2년전 노숙경험한 바가 있음. 차드라는 기관에서 자원봉사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다른 청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됨. 포이어와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음. 포이어가 청년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 또한 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 속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음. 예를 들어 건설업 훈련에 참여하며 건설업의 특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음

○ 영국에서도 정부가 훈련을 제공하지만, 정부 프로그램은 청년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 청년 개인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서로 인식이 다른데 정부는 이와 같은 욕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포이어와 같은 세심한 관리와 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 포이어는 커뮤니티를 잘 알고 있고, 파트너쉽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과 고용을 연계하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정부는 양적 평가에 관심을 두지만 포이어는 좀 더 좋은 고용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봄
- 사례(여성), 오픈대학을 통해 법을 공부 중. 학생의 학습 역량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부족한 학생이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
- 시범사업 지역 농촌거주 청장년 중 기존 거주자와 신규거주자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 계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역커뮤니티와 연계된 자원지원, 일자리와 연계된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포이어가 파악해 보면 전국적으로 34.4%가 재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음. 다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영국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계하기도 함. 포이어도 자원단체와 연계해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대학이 아니더라도 특정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함. EET 예산으로는 학생교육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사례로 풀타임 학생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 포이어에서 거주를 지원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포이어가 대학과 파트너쉽을 하고, 희망하는 학생의 교육, 학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함

○ CTF도 운영과정에서 미수령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이 대부분임. CTF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엔필드에서 운영한 워크숍에서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이후에 CTF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짐

- 마틴 루이스라는 분이 CTF를 알리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음. 20세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CTF 자격이 사라지므로 이를 알리는 활동을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음

- 포이어는 별도로 알리는 작업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결국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지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음
-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내 취약계층(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으로 면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역화폐를 통한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거나 제약을 느낄 수 있음. 이들 취약계층이 지역화폐로 제공된 기본소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필요

○ 포이어와 협업 기관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업이 낙후된 지역도 있음. 농어촌지역의 경우 거주지역도 넓게 분산되어 있음

- 대안으로 온라인 러닝, 재택 교육 등의 방식도 제안하고 있음. 도시의 문제가 거주청년의 자립이라면, 농촌지역은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현지 기업이 부족해서 고용에 대한 소외 현상이 있음
- 코넬지역이 대표적임. 주요 산업이 관광에만 집중되어 있음.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서중부지역은 큰 쇼핑센터가 들어오며 중간기업이 붕괴. 이로 인해 청년이 떠나는 문제가 발생함. 실제 농촌에서 정주는 쉽지 않음
- 런던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다른 소외지역은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고민도 있음

⑤	**영국의 금융지원제도 및 웨일즈 기본소득 사업 현황 및 평가**
일 시	10월 9일 (금) 11:00
장 소	Open Univ. Office
참석자	Rajiv Prabhakar 교수 김태완, 류진아, 한수진(KIHASA)

□ 영국 분배 상황

○ 영국에서는 양극화는 정치적 차원에서 의미함.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 양극화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소득 양극화를 보고 있음. 최근에는 생활물가 증가속에서 양극화를 보고 있음. 영국에서는 소득양극화가 관심이 있음.

○ 부동산은 비교적 최근 이슈임. 부동산은 젊은 세대의 구매력 문제임. 정책 디자인에서 정치인이 노력하지만 근거를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

- 자산은 부동산, 금융, 연금 등 다양함. 영국 조사에서는 귀중품도 조사 중. 영국 젊은 층은 저축과 부동산 구매를 통해 자산을 축적함. 자산축적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함. 자산축적을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음.

○ 유산과 상속 문제는 영국에서도 있었음. 부동산 상속이 문제가 된 바 있음.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세대간 불평등으로 발전하게 됨

- 해소방안으로는 조세가 좋을 것 같음.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는 어려운 문제임. 영국 정부는 상속관련 조세는 비우호적임. 소득 발생시 일정비율을 대출해주고 이를 다시 환수하는 형태의 다른 방식

으로 하고자 함

□ 자산형성지원 제도 및 금융기본권 관련 논의

○ 영국에서 은행의 역할은 모든 국민이 계좌를 보유하도록 함. 은행이 개개인이 은행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임. 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영국 정부도 지원함

- 영국 정부는 국민이 보유한 계좌를 통해 소비와 지출 과정을 파악. 반면 미소지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계좌를 통해 조세 포착 등도 포함하고 있음.
- 저소득층이 계좌가 없을 경우, 모두에게 계좌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비임금 근로자도 기본계좌 가입 가능. 혜택과 대출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음. 미계좌로 인한 편익이 낮음. 2차적 빈곤에 노출 가능
-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본사회 개념 중 하나인 금융기본권 관련 내용과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계좌를 통한 활용(조세 등)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영국은 저소득층의 저축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Help to save를 운영하고 있음. 월 최대 50파운드를 4년간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 실적에 따라 최대 1200파운드의 정부 보너스를 제공함.

- 문제는 활성 계좌는 약 30만 개인 반면 참여 가능 대상은 300만 명으로 차이가 있음. 참여자와 계좌수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 모든 국민이 계좌를 열어도 소수만 활용하고 이익을 보는 문제가 있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난제임.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하기도 함.
  -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계좌 개설률은 높아질 수 있으나, 실제 저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임.
- 두 번째 문제는 계좌 개설 이후 지속적인 활용 여부도 중요함. 금융교육 부족과 참여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축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자산형성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반대로 과도한 저축은 현재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CTF(Child Trust Fund)는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까지 적립하고 이후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됨. 다만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추가 저축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자산형성 규모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동 제도는 2011년 신규 가입이 종료됨.

- 저소득층은 적은 금액을 저축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자산형성 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한국에서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가 중요함. CTF의 경우 계좌 개설 이후 지속적인 안내가 부족하여 계좌의 존재를 잊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됨. 이에 따라 학교 진학, 취업 등 생애주기의 주요 시점에 계좌의 존재와 활용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자산형성을 보편성 혹은 선별성으로 할 것이냐가 검토 필요. 저소득층에게 더 지원해 주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검토 가능. 제도에 따라 특정집단에 지원시 불만이 나올 수 있음. 그래서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봄

- 저소득층을 타켓팅한 제도 운영시 고려 사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참여는 별개로 고려했으면 함

○ 정부 정책을 통해 포괄적 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제도 운영과정상 누락, 탈락하는 현상이 있음. 기본권이 유지되는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대상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음

○ 개개인이 금융에 대한 책임감이 있음.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 금융기본권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함

□ 웨일즈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

○ 웨일즈 정부는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매월 1,600파운드를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수행

- 사업참여는 635명이며, 자격 대상의 97%가 참여할 것으로 나타남

○ 웨일즈 기본소득 실험이 가지는 의미는 지방분권과 시민권 간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음. 즉 지방정부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속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웨일즈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이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점진적 보편주의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겼으며, 크게는 사회적 임금으로의 진전을 목표로 두고 있음
- 웨일즈 기본소득은 기존 영국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이 가지는 불평등(저소득가구 자녀에 비해 고소득 가구 자녀의 추가저축 여력)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예상되는 점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기본소득 실험이 종료된 이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급금액이 종료되었을 때, 보호종료 청소년이 가지는 소득절벽 현상,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사업 실험이 가지는 한계 등이 지적. 이는 한국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주는 시사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⑥	**영국 사회정책 변화 논의**
일 시	10월 9일 (금) 14:00
장 소	런던 코벤트 가든 인근 회의실
참석자	한솔희 박사 김태완, 류진아, 한수진(KIHASA)

□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논의의 배경**

○ 기본서비스 논의는 현금 중심의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대안 또는 보완으로 제기되어 왔음. 소득보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 특히 돌봄·보건·주거·교통 등 집합적으로 공급될 때 비용 효율이 높은 영역을 공공이 보편적으로 제공하자는 구상임

○ 영국은 NHS라는 보편적 보건서비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논의의 초점이 서비스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있음. 반면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서비스 확충 자체가 선결 과제가 됨

○ 돌봄 영역은 영국에서도 보편화가 가장 더딘 분야임. 보건은 보편적으로 제공되나 사회적 돌봄은 자산조사를 거치는 구조로 남아 있어, 기본서비스 논의가 집중되는 지점임

□ 현금과 서비스의 관계를 보는 관점

○ 현금과 서비스는 대체재가 아니라 작동 조건이 다른 수단으로 보아야 함. 현금은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히지만, 선택할 대상이 지역에 존재하지 않으면 실질 가치가 낮아짐

○ 특히 인구가 적고 서비스 공급 기반이 얇은 지역에서는 현금이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발생함. 농어촌 지역에서 현금급여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조건임

○ 반대로 서비스만 공급할 경우 개인의 선택과 존엄의 측면이 제약될 수 있음. 양자의 적정한 조합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 과제임

□ 재분배와 복지국가 태도에 관한 연구 소개

○ 조세와 급여의 순액(net benefits, 급여에서 조세를 차감한 금액)이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분석 대상은 독일(사회보험 방식), 스웨덴(조세 기반 보편 방식), 영국(조세 기반 자산조사 방식) 세 나라이며, 각각 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자유주의 복지체제를 대표함

○ 자료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IS)와 유럽사회조사(ESS)의 2016년 자료를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 기법으로 결합하여 사용. 소득, 연령, 성별, 학력(독일은 직업 추가)을 매칭 변수로 활용하였고, 유사성 지수가 0.06 미만일 때 매칭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

○ 태도 변수는 '정부가 실업자, 노인, 일하는 부모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

□ 주요 분석 결과

○ 조세, 급여, 순액의 수준과 복지국가 지지 간에 일관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음. 즉 개인 수준의 금전적 손익 계산만으로는 복지국가 지지를 설명하기 어려움

○ 독일에서는 중위 소득집단과 중위 급여 수급집단의 지지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남. 기여와 소득비례에 기반한 보험 방식에서 중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와 부합함. 조세 수준은 부정적 태도와 연결되지 않았음

○ 스웨덴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지가 오히려 높아졌고, 4~7분위 중간 소득집단에서 가장 크고 유의하게 나타남. 조세가 높을수록 지지가 높아지는 반면 현금이전이 많을수록 지지는 낮아지는 양상이 관찰됨

○ 영국에서는 조세가 지지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급여나 소득은 뚜렷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음. 소득의 부정적 효과는 최상위 10%에서만 유의했고, 현금이전은 어느 분위에서도 유의하지 않았음

○ 영국에서 현금이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는 급여 수준 자체가 관대하지 않다는 점, 수급 과정의 낙인, 엄격한 수급 조건이 금전적 이득을 상쇄할 가능성 등이 거론됨

□ 연구의 한계와 기본서비스 논의로의 연결

○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한계로 사회서비스가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점을 지적함. LIS 자료에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가 없어 급여를 현금이전으로만 한정하였음

○ 스웨덴은 교육, 보건, 노인돌봄, 아동돌봄 등 사회서비스가 매우 관대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지방소득세로 재원이 조달됨. 따라서 현금 기준의 순액만으로는 스웨덴 국민이 실제로 받는 혜택의 총량을 포착할 수 없음

○ 이 지점이 기본서비스 논의와 직결됨.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를 현금만으로 측정할 경우 서비스 중심 체제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됨.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확장된 순수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표자의 문제의식

○ 또한 제도 유형에 따라 수혜자와 부담자의 연결 방식이 달라지며, 이것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형성함. 기본소득이든 기본서비스든 어떤 재원 조달 방식과 결합되는지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함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주는 함의

○ 첫째, 수급자가 받는 혜택을 현금 금액만으로 측정하면 시범사업의 실제 효과를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음.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함께 측정하여, 현금과 서비스를 합한 총 수혜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주민의 제도 지지와 수용성은 받는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부담과 혜택의 연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함께 작용함. 조사에 제도에 대한 태도와 인식 문항을 포함할 가치가 있음

○ 셋째, 자산조사형 제도에서는 낙인과 조건이 금전적 이득을 상쇄할 수 있다는 영국의 결과는, 무조건·보편 지급 방식이 갖는 상대적 이점을 시사함. 다만 그 이점은 금전적 효과가 아니라 태도와 존엄의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넷째,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 확대를 검토할 때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지지 기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수집자료)

3 출장 증빙 (세미나 및 회의현장 사진, 명함 등)

10월 6일 (화) King's college 인근	10월 6일 (화) Local Trust
	
10월 7일 (수) King's college	10월 8일 (목) Foyer
	
10월 9일 (금) Open Univ.	10월 9일 (금) 한솔희 박사
	